

隱喻에 關한 言語學的인 考察

朴 培 英

A Linguistic Study on Metaphor

Bae-Yung Park

〈目 次〉

- | | |
|------------------|-----------------|
| 1. 序 論 | 3. 隱喻의 言語學的인 考察 |
| 2. 隱喻의 修辭學的인 分析과 | 4. 結 論 |
| 文學的인 分析 | |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has investigated metaphor as a technique in rhetoric and literature. As a result of continued interest in deviant sentences and meaningless utterances many linguists have paid their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metaphor.

By means of investigating the theories of metaphor the author has tried to establish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distinguishing of metaphor from nonmetaphor.

Bickerton resorts to the notion of a specific attribute and he regards the assignment of a specific attribute to a particular signs arbitrary, but if the sign lacks such a specific attribute, the sign has no metaphoric use.

On the other hand, Matthews insists that the performance distinction between metaphor and non-metaphor is characterized on the competence level in terms of a distinction between semantically deviant and non-deviant sentences, and that the presence of a selectional restriction violation is thu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distinguishing of a metaphor.

Performance phenomena such as metaphor must be within the realm of linguistic inquiry, a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such analyses to conserve the distinction between language(competence) and the use of language(perfor-

mance).

1. 序 論

隱喻는 比喻의 한가지로 對照的인 直喻와는 달리 A is as~as B 혹은 A is like B와 같은 比較의 形式에 依한 것이 아니고 A is B와 같이 表現해서 B가 表現하는 意味內容은 A에 附加하는 表現樣式을 말한다. 그러나 直接 A is B와 같이 表現되어 있으나 이것이 A가 文字 그대로 B이라는 것이 아니고 A와 B와의 연결은 部分的인 共通의 要素에 依한 것이다.¹⁾ 隱喻는 그들의 글자 그대로의 意味에서 혹은 中心的인 意味에서의 전환이다.²⁾ 比喻의 表現들은 여러가지 다른 일들 사이의 類似點을 利用하여서 文章을 描寫的으로 그리고 다채롭게 만든다. 比喻의 言語는 文章에 生命을 주며 抽象的인 表現을 具體的인 것으로 바꾸는 方法을 提示한다.

隱喻는 修辭學의 技法으로 取扱되어 왔으나 最近에는 意味論의 問題로 그 研究對象이 되어 있다. 한 낱말이나 한 表現이 두개 以上의 意味를 가질 때 그 중의 한가지 意味를 普通의 意味 혹은 中心的인 意味라고 부르며 남은 것은 周邊的 혹은 轉用의 意味라고 부르는 것이나 이것을 隱喻의 例로 생각할 수 있다. "There goes a tiger."라고 말할 때 普通 動物의 호랑이를 그 中心的인 意味에서 理解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가르켜서 "There goes a tiger."라고 말할 때는 tiger를 호랑이처럼 強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하나의 隱喻이다.³⁾

隱喻는 根本的으로 같지 않은 사물의 結合에 根據를 두고 있다. 隱喻는 다른 사물에 關한 새로운 意味나 더 特殊한 意味 혹은 더 넓은 意味가 理解되고 혹은 創造되는 方法으로 한 사물의 意味 혹은 暗示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隱喻는 觀察의 몇개의 單位를 綜合해서 하나의 支配的인 이미지로 바꾼 것이며 이것은 또한 分析이나 抽象的인 陳述에 依한 것이 아니고 客觀的인 關係의 갑작스러운 知覺에 依한 復合된 아이디어의 表現이다. 隱喻의 效果가 論理的인 關係를 가진것은 极히 소수일 것이다.

隱喻는 文學上 혹은 修辭學上의 用語로 科學的인 分析의 對象이 되지 못하였으나 Aristotle는 이것을 特殊한 사람이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天賦의 才能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는 隱喻가 言語 一般에 遍在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使用하고

1) Sir Alen Gardiner, *The Theory of Speech and Language*, Clarendon Press, 1963. p. 165.

2) Hans P. Guth, *Concise English Handbook*, Wordworth Publishing Co., Inc., Belmont, California, 1970. p. 116.

3) James E. Robinson, *The Scope of Rhetoric, A Handbook for Composition and Literature*. Scott, Foresman, and Company, Glenview, Illinois, 1970. p. 113.

있다는 事實을 錄과하고 있었다.

隱喻에는 다른 比喻와 같이 두개의 現象間의 共通點을 發見하고 이것을 直接說明하는 適當한 術語가 없었는데 Johnson는 tenor(主意)와 vehicle(媒体)라는 術語를 써서 隱喻를 說明하고 있다. 봄이 되어서 처음으로 robin새를 보고서 “herald of spring”이라고 부른다면 傳今官의 役이 王에 對한 役割을 robin새가 봄에 對하여 하고 있는것, 즉 “무엇”인가의 “전조”를 主意이라고 부르고 그 主意가 委託되어 있는 robin새를 媒体, 그리고 그 兩者가 結合되어 있는 結果를 隱喻라고 부르는 것이다.

最近에 와서 deviant sentences와 meaningless utterances에 對한 繼續的인 關心은 隱喻에 對한 注意를 갖게 하였다. Bolinger은 意味論의 理論이 metaphorical invention의 과정을 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리고 Bickerton은 이러한 절박한 事情은 새로운 研究를 要求한다는 것을 確信하는 까닭으로 이 理論이 言語學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왜냐하면 非言語學的인 研究方法은 이 問題를 모호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또한 이것들이 失敗하는 것도 역시 非言語學的인 것이 그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勿論 아무도 隱喻에 對한 새로운 研究를 否認하지는 않지만 隱喻에 對하여 說明할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하게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는 言語理論에 있어서 隱喻의 役割에 對한 討論들은 學說을 세우기 위한 그 問題에 關한 注意깊은 系統的인 說明을 無視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隱喻에 있어서의 哲學的인 關心도 勿論이고 또한 繼續的인 言語學的인 것도 결코 그릇된 方向으로 이끌여지지는 않았다. 言語의 綜合的인 理論에 對한 어떠한 試圖도 이 特殊한 言語學的인 現象에 適合한 說明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說明은 正常의 言語使用에 있어서의 隱喻의 높은 頻度라는 理由뿐만 아니라 또한 言語의 文法의 正當性과 創造性的決定的인 概念과 隱喻의 認定된 類似性 때문에 더욱 그 理論에 對한 中心의 重要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言語의 綜合理論의 目標를 隱喻의 포섭적인 理論에 一致시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理論을 適合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最少限度의 要求를 充足시켜야 한다.

隱喻의 理論은 그것이 非隱喻에서부터 隱喻를 구별하기 위하여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을 樹立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最少限度의 適當性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것이 隱喻의 理論에 决定的인 것이다. 이러한 구별의 重要性의 特性表示가 公式化될 수 없으면 全體의 問題는 와해되고야 만다. 隱喻의 理論은 그것이 그 言語言學的인 能力에 依하여 어떻게 speaker가 隱喻를 해석하는가를 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그 言語言의 native speaker가 言語言의 非隱喻的인 것을 取扱하는데 使用하는 것과 같은 言語言學的인 道具를 隱喻를 取扱하는데 使用한다는 言語言의 더-

般的인 理論아래 포섭된 隱喻의 어떤 理論이 假定되어야 한다. 이 두개의 隱喻의 適合한 說明를 위한 要求는 한편으로는 言語의 非隱喻의in 使用에서 隱喻의in 使用을 適合하게 구별하는 것을 要求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言語의 더 綜合的인 理論이 意味論의 構成要素라는 點에서 隱喻의 意味論의 適合性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隱喻의 어떤 適合한 理論은 言語의 더 綜合的인 理論과 함께 表現되어야 하지만 위의 두개의 要求를 根據로 해서 우리가 더 綜合的인 意味論의 理論이 없다 하여도 어떤 研究가 隱喻의 適合한 理論에 있어서 重要한 가를 指摘하는 隱喻의 說明을 表現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이 論文에서는 이런 隱喻의 理論을 展開하려고 한다.

2. 隱喻의 修辭學的인 分析과 文學的인 分析⁴⁾

Aristotle는 “the poetics”에서 偉大한 일은 隱喻를 自由롭게 驅使하는 것이며,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天才의 表示이다. 왜냐하면 좋은 隱喻를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類似點에 對한 觀察力を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程度의 差는 있기는 하나 隱喻를 驅使할 수 있으며 個人으로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처럼 隱喻를 배울 수 있으며 결코 隱喻가 言語의 使用에 있어서 어떤 特殊하고 例外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事實이다.

修辭學의 歷史를 通하여 볼 때는 隱喻는 言語을 素材로 한 한가지 trick이며 言語의 变通자재의 現象을 개발하는 것이나, 例外的인 才幹과 注意를 要求하는 것으로 取扱되어 왔다. 簡單히 말해서 言語의 長點 혹은 장식이나 혹은 부가된 힘이며 그것의 構成的인 形態는 아니다. 隱喻가 言語에 遍在되고 있는 原理라는 것은 쉽게理解될 수 있는 일이다. 科學과 같은 嚴密한 言語속에서도 隱喻를 제거할 수 없으며 美學, 政治學, 社會學, 倫理學, 心理學 등에서도 隱喻를 어떻게 使用하고, 確定된 말들의 意味가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哲學에 있어서도 隱喻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다. 가장 單純한 文章에서도 隱喻를 使用할 때는 한 날말이나 句에 依하여 두가지 다른 意味를 表現할 수 있으며 그것의 뜻은 그들의相互作用의 結果로 생긴 것이다.

Johnson은 隱喻의in 表現에 對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만약 이것이 올바르게 使用되면 文体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 된다. 즉 한 날말에 두개의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다.” 한 날말에 對하여 두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文体의 優秀

4) A.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36. p. 89.

性은 두개의 아이디어가 相互間에 어떻게 作用하는가에 左右되는 것이다. 勿論 細密하게 觀察하면 共存하는 생각 사이의 이러한 相互作用의 方法에는 많은 種類가 있는 것이다. 傳統的 理論은 隱喻를 言語上의 問題, 날말의 變化와 바꾸어 놓기로 간주하고 있으나 根本的으로는 생각 사이의 차용과 교체이며 文脈사이의 transaction이다. 隱喻의in 생각이 比較에 依하여 進行되고 거기에서 言語의 隱喻가 끌어 내어 진다.

Johnson은 隱喻를 說明하는 技術的인 두 術語를 만들었다. 하나는 tenor이고 다른 하나는 vehicle이다. 隱喻를 해석하는 適合한 用語가 없었으므로 이것으로 隱喻를 풀이할 수 있으나 이것도 混亂을 초래하기가 쉽다. 즉 하나는 the original idea이고, 다른 것은 the borrowed idea이며 혹은 실제로 말해지고 생각되는 것이고 또는 比喻되는 것이고 underlying idea 또는 imagined nature이고, the principal subject 또는 그것에 類似한 것, 혹은 單純히 그 意味와 隱喻 혹은 the idea와 그 것의 image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ehicle을 說明함으로써 tenor를 해명하고 그 意味를 限定할 수 있다.

現代의 理論은 첫째로 隱喻의 많은 가장 重要한 使用에 있어서 vehicle와 tenor의 共存이 그것의 相互作用없이 成就할 수 없는 뜻을 갖게 된다는데 反對한다. vehicle는 tenor에 依하여 다른 狀態로 바꾸어지지 않은 tenor의 單純한 장식물이 아니고 vehicle와 tenor가 서로 作用해서 각各에게 돌릴 수 있는 것 보다도 더욱 多樣한 힘의 뜻을 줄 수 있다. 여러가지 다른 隱喻에서는 이러한 結果로서 생기는 意味에 對한 vehicle와 tenor의 公헌의 相對的인 重要性은 無限하게 變化한다. 極端的인 面에서는 vehicle이 tenor의 單純한 장식이나 爪색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極端的인 面에서는 tenor가 vehicle의 紹介의 解明이 되고, 더 以上 principal subject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例를 들어서 “the leg of a table”라는 隱喻를 생각할 때 이것을 生命이 없는 隱喻라고 認定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生命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the leg of a horse”라는 것을 밝힐 必要가 있다. 分明한 差異點은 탁자의 다리는 말의 다리의 몇몇 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탁자는 그 다리로 걷지는 못하며 다만 탁자를 쳐들고 있을 뿐이다. 이런 根據는 쉽게 찾을 수도 있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隱喻가 어떻게 作用하는지 혹은 무엇이 隱喻의 根據인지 밝힐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隱喻가 使用되는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리나 혹은 돼지라고 부를때 그 隱喻의 根據로 그 사람이 오리나 돼지 같이 보인다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녀가 부리나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갖고 있다고 그녀를 오리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 意味變化는 훨씬 難解하다. 普通 오리는 魅惑的이고 애교 있는 動物로 생각되고 있다. 이 根據에 對한 極端的인 簡單한 說明으로는 오리에 對하여 느끼는 즐거운 感情이 어떤 사람에게도 느끼지는 것이다. tenor와 vehicle사이의 直接的인 類似點을 通하여 作用하는 隱喻와 우리들이 두가지에 對

하여 채택하는 어떤 共通的인 態度를 通하여 作用하는 隱喻에는 큰 區分을 할 수 있다. 勿論 이런 區分은 最終的인 것이 아니고 또한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the leg of a table”的 表現을 생각하면 거기에 글자의 뜻에 구애되는 使用法과 隱喻의in 使用의 限界는 固定된 것도 一定한 것도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무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面에서는 글자 그대로의 表現이고 다른 面에서는 隱喻의in 表現도 될 수 있다. 한 날말은 同時에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隱喻의in 뜻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말하자면 同時に 많은 다른 隱喻의in 뜻을 가지며 또한 한 意味 속에서 많은 다른 意味를 集中시킬 수도 있다. 이 點은 매우重要な 것이며 그 理由는 만약 한 날말이 한가지로 作用하면 同時に 다르게 作用할 수 없으며 다른 意味도 가질 수 없다고 억측함으로써 誤解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고로 날말이 글자의 뜻 그대로 使用되는 것이냐 혹은 隱喻의in 使用되는 것이냐를 決定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들은 잠정적으로 한 날말이 두개의 아이디어를 주느냐 혹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느냐 또는 그 날말이 包含되는 意味 속에서 협동하는 tenor와 vehicle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決定을 지울 수 있다. 만약 우리가 vehicle에서 tenor를 구별할 수 없으면 그 날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그와 反對로 우리가 적어도 두개의 협동적인 사용을 식별할 수 있으며 隱喻의in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⁵⁾

言語의 隱喻의 使用은 隱喻의이다. 그 理由는 그것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는事實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單純히 틀린다는 뜻에서가 아니고, 不可能이며 不可能같이 보인다는 뜻에서 事實이 아닌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급히 教室에 달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教室에서 달려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隱喻는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隱喻의 始作이다. 즉 “그가 教室로 날아 들어갔다”. “He bulldozed his way through the crowd.”라는 文章 속에서 그가 群衆들을 밀어낼 수는 있으나 글자의 뜻 그대로 불도우저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

다음의 詩에서 나타나는 一連의 連結된 隱喻를 볼 수 있으나 이 詩의 基礎가 되는 것은 事實의 不可能性에 對한 表現이고 文章의 뜻 그대로 볼 때는 하나의 거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Goe, and catche a falling starre,
get with child a mandrake roote,
Tell me, where all past years are,
or who cleft the devils' foot,
Teach me to heare mermaides singing

5) Paul Newell Campbell, Rhetoric, Dickenson Publishing co., Inc., Belmont, California, 1972. p. 145.

or keep off envies stinging,
and finde
what winde
serves to advance an honest minde.

위의 詩에서는 뒤섞인 隱喻가 있으며, 이 詩의 重要한 部分이 바로 隱喻의 性格인 것이다. 이 作品을 隱喻로 만드는 것은 실제는 存在하지 않는, 또한 노래도 부르지 않는 人魚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까닭으로 “Teach me to heare mermaides singing”이 隱喻가 되는 것이 아니고 人魚의 노래를 듣는 것의 不可能性이다. 隱喻의 重要한 部分은 바로 그 不可能性이다. 이런 點에서 形式과 內容의 限界線를 넘게 되는 것이다. 隱喻는 一連의 技巧로서는 形式이지만 隱喻가 거짓의 事實로서는 意味 즉 內容이다. 이 點에서 隱喻는 形式인 同時に 內容이기도 하다.

The joints of thy thighs are like jewels, the work of the hands of a cunning workman. 이 詩에서는 사랑스러운 女人的 몸을 아름답게 加工한 寶石으로 比喻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點에서는 形式的인 技巧이며, 다른 面에서는 意味이다. 隱喻는 事實上 比較할 수 없는 일을 比較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전에는 자주 統合하지 않았던 것을 統合하기도 한다. “unwritten books are like unpaid debts”는 하나의 隱喻이다. 써어지지 않는 책은 사실상 清算되지 않는 負債와 같지는 않다. 그러나 두가지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類似한 느낌을 준다. 그 理由는 써어지지 않는 책에 對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造하는 것이며 이것은 清算되지 않은 負債와도 비슷한 것이다. 이 隱喻에서 重要的 것은 새로움이다. 책은 써어진 것인든 써어지지 않는 것인든 혼한 것이며 普遍的인 것과 같이 負債도 마찬가지이다. 重要的 것은 두 가지의 結合이다.

隱喻의 要素와 素材가 全的으로 平凡한 것이라도 그 結合이 새로운 것이라면 그 結果는 아주 價值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now in the winter of our discontent made glorious summer by this sun of York”에서는 winter와 discontent는 注目할 만한 것이 못되나 “winter of our discontent”는 전격적인 새로움이다. 不滿의 感情이 싸늘하고 언 季節을 暗示하며 또한 不滿은 겨울처럼 定期的으로 일어나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을 不滿의 季節의 特殊한 部分, 가장 추운 部分이 가까이 있다는 概念을 包含하고 있다. 隱喻는 가장 深遠한 意味에서 部分을 새로운 全體 속으로 融合시키는 것이다. 詩를 重要하게 하는 것은 이 새로움의 質이다. 詩에서 다른 方式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態度, 새로운 感情, 새로운 아이디어가 公式化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새로움은 전에는 結合되지 아니하였으며 分明히 矛盾된 것에서 오는 것이다.

3. 隱喻의 言語學的인 考察

科學的인 言語學에서는 physical element는 發音器官에 依하여 만들어지는 音의 連續을 뜻하며 semantic element는 이에 해당하는 segment of thought를 意味한다. 만약 semantic element에 關係없이 physical element만을 研究한다면 物理學의一部分을 研究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semantic element研究에 限定된다면 그것은 心理學의一部分이 될 것이다.⁶⁾

言語學者가 研究하는 것은 두개의 構成要素, 즉 sounds와 concepts이며 前者를 format로 後者를 morphem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낱말의 semantic element는 變化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意味를 가질 수도 있고 그때에는 원래의 意味는 사라진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그 意味가 變化했다고 말한다. 發音과 意味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언제나 繼續되고 있다. semantic element가 細分되고 增加되기도 한다.⁷⁾

意味變化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런 變化들은 生活이 變하는 經驗을 通하여 원래의 意味는 維持하기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많은 形態의 意味가 있다. 그들 중의 약간은 오랜 使用과 많은 反復에 依하여 그들이 원래의 생생함을 상실하고 낡아서 없어지게 된다. 變化를 일으키는 것에는 많은 것이 있다.

한 낱말이 한가지 言語學의 形態와 關連되었을 때 낱말의 形態가 變化하는가는 category가 左右된다. 이런 根據에서 意味變化의 네가지 category를 들 수 있다. 즉 narrowing, widening, metaphor 그리고 shift이다. metaphor는 transfer라고 부르기도 한다. metaphor는 semantic space을 通한 낱말의 도약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 言語現象은 行動이나 對象物의 두개의 category가 적어도 한가지 feature에서 使用될 때와 그들 중의 하나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이름의 經驗이 다른 이름없는 category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種類의 transfer에서는 가끔 원 낱말의 意味와 새로운 意味사이에 큰 差異가 생기는 結果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意味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隱喻는 大端히 普遍의이면서도 그것이 생기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說明하기는 쉽지 않다. 隱喻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滿足스럽게 說明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結果로 言語學者들은 이것을 言語의 質을 나쁘게 만드는 現象으로 다투고 있으며 隱喻의 核心的인 問題보다는 普通의 使用에만 集中的인 研究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隱喻처럼 자주 일어나는 現象은 言語學의 變化의 根源으로 言語를 使用하는 우리들의 能力의 증추가 되는 것을 研究해야 한다. 그리고는 隱喻는 사람들이 낱말을 어떻게 使用하며 낱말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는 意味論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6) John P. Hughes, *The Science of Language*, Random House, 1963. p. 14.

7) Giles Wilkeson Gray and Claude Merton, *The Bases of Speec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p. 372.

Bickerton는 隱喻의 理論을 展開하기 위하여 세가지 假定을 설명한다. 첫째는 낱말들은 고정되고 명확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한 文章의 意味는 그 文章을 構成하는 낱말들의 合計이며, 셋째는 text의 解석 가능성은 mode of discourse free이라는 것이다.

隱喻가 文章속에서 생길 때 隱喻를 認定하는 言語能力과 逸脫文을 알아보는 言語能力사이의 類似性에 注意하면서 그는 文脈과 關係없는 方法으로 隱喻와 逸脫文사이의 구별을 隱喻理論의 根本의인 課題로 삼는다. bachelor girl은 隱喻를 認定하나 spinster boy은 隱喻가 아니라고 인정할 때 그는 特定한 屬性이라는 概念에 依存한다. 特定한 屬性은 特殊한 자질을 意味하는 것이며 普通 sign의 denotatum에 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英語에서 iron에 對하여는 hardness라는 屬性이 定하여지고 있다. 어떤 特別한 sign에 對한 屬性의 指定은 멋대로의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으나 그 sign의 그러한 屬性이 없으면 그 sign은 隱喻의in 使用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指定된 屬性을 가진 lexemes는 marked sign에 屬하는 것으로 보며 그런 屬性이 없는 lexemes는 unmarked sign으로 본다. marked된 것을 잠재적인 隱喻로 인정하는 낱말의 概念을 根據로 하여서 잠재적인 隱喻와 單純한 逸脫文사이의 區別은 簡單하게 된다. 낱말이 marked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만 하면된다. Bickerton는 그의 semantic model을 fixed rank-ordering of categories 없이 multidimensional grid로 說明하고 있으며 category사이의 特別한 두개의 反對語에 關하여는 그 중의 하나만을 marked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marked sign의 선택은 꽤 제 멋대로 하고 있지만 그들에 불일 屬性의選擇은 그렇지 않다. 주어진 言語에서는 反對語의 數는 限定되어 있고 增加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隱喻를 인정하는 것이 이 理論에 對한 基本의인 困難한 問題이다. 言語 使用 問題에 重點을 두지 않는다면 어느 sign이 잠재적인 隱喻로 marked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問題點이다. 어떤 特殊한 sign이 marked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가 그것의 marking을 確認하기도 前에 그것이 잠재적으로 隱喻의이며 單純히 逸脫의 아니라는 것을 決定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sign이 marked되어 있다고 決定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前에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marking을 包含하지 않는 創造의이고 獨創의인 隱喻의 많은 보기를 어떻게 說明할 수 있겠는가? Bickerton은 이러한 真正한 隱喻를 屬性의 指定의 方式의 延長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說明하는 어려움을 無視하고 있다. 우리가 關心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真正한 隱喻이며 屬性指定의 延長이라고 理論은 결코 滿足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이 marked sign의 概念이 정밀로 잠재적인 隱喻를 單純한 逸脫文과 區別하는 必要라고 充分한 條件을 樹立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分明하지 못하다. 그러나 marked되어 있다는 것이 잠재적으로 隱喻의인 것으로서 sign의 使用을 區分하는 것은 充分한 條件일지라도 實際히 必要한 條件이 될 수는 없다. Bickerton이 unmar-

ked이기 때문에 逸脫文이라고 말한 green ears와 같은 表現도 다음의 文章속에서는 隱喻라고 생각할 수 있다. “The sailor’s profanity curled the seminarian’s green ears”. Bickerton이 提唱한 marking system이 不當하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이 不當性은 根本의인 것이다. 그 理由는 sign이 隱喻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可能한 다른 文脈에 對하여 추가된 文脈에 關係敘는 marking이 要求되기 때 문이다.

만약 옳은 文脈이 주어지면 거의 모든 逸脫文이 隱喻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結果로 marked sign이라는 概念은 모든 効能을 상실하고 만다. 그런고로 이 概念은 잠재적인 隱喻를 단순한 逸脫文과 구별하는 必要한 條件을樹立할 수가 없으며 특히 真正한 隱喻일 경우에 이 概念에 붙여지는 概念의 問題가 주어지면 充分한 條件을 만드는 것도 明白하지는 않다. 잠재적인 隱喻를 隱喻로 인정하는 問題는 文脈에 關係되는 現象이며 marking의 概念이 隱喻를 非隱喻에서 區別하는 必要하고 充分한 條件을 提示하지는 못하고 있다. Bickerton는 모든 逸脫文이 事實上 잠재적인 隱喻가 아니라는 것도 證明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Bickerton이 왜 隱喻가 잠재적인 隱喻와 단순한 逸脫文을 구별하는 言語能力이라는 點에서 說明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 分明하지 않다. marked sign理論의 基本의인 잘못은 隱喻와 非隱喻 사이의 言語運用의 區別이 逸脫文과 非逸脫文 사이라기 보다는 잠재적인 隱喻와 단순한 逸脫文 사이의 言語運用의 區別과 같다고 假定한 點이다. 普通 文章에서 發話行爲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혹은 逸脫文의 경우에도 해석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바꾸어 말하면 言語運用에서 어떤 發話行爲가 隱喻로 인정되느냐 혹은 단순히 逸脫文으로 인정되느냐라는 問題는 어떤 特殊한 文脈에서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發話行爲가 意味가 있는지 없는지 明白하지 않을 경우는 그 發話가 隱喻의인지 혹은 단순히 逸脫文인지에 關하여 決定하는데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隱喻와 단순한 逸脫文과의 分別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편에서 隱喻의으로 말하고 듣는 의도도 포함한다. 重要的 言語運用區別은 오히려 逸脫文과 非逸脫文 사이에 있다. 變形成 文法學者들은 隱喻을 해석할 수 있는 逸脫文의 한 보기로 간주하는데 滿足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 文法에서는 言語運用과 言語能力 사이의 注意깊은 分離의 증거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Bickerton은 두개의 概念을 混同하고 있으며 隱喻의 言語運用을 逸脫文의 言語能力과 對照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簡單히 말해서 Bickerton는 言語使用의 現象으로서 隱喻를 認識하는데 失敗하고 있다.

Bickerton는 隱喻를 어떻게 말하는 사람의 意味論의 能力이라는 點에서 해석하느냐에 對하여 아무런 言及이 없다. 그의 理論에서는 隱喻의 理解가 非隱喻의 文章의 理解와 關連되어 있는 것이 分明치 못하다. marked sign의 理論으로 判斷할때 Bickerton은 隱喻의 意味를 marking에 依하여 sign에 첨부되는 特殊한 屬性의直接的인 結果를 보는 것이 옳다. iron에는 hardness라는 屬性이 있는 것이다. 結

論的으로 볼 때 그는 特殊한 屬性이 날말의 隱喻的인 意味의 適切한 表現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iron will을 hard will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Richard is lion-hearted”라는 隱喻의 文章은 “Richard is brave” 혹은 “Richard is brave like a lion.”의 文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隱喻를 단순히 文体의 裝飾으로 간주하는 대화론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學派의 見解는 이것이 意味있는 것으로 表現하려는 文章이며 혹은 더욱 正確하게 말해서 逸脫文章이지 隱喻를 理解하는데 초점이 되는 隱喻의 날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理解하지 못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逸脫文이라고 해석되는 言語構造로서의 隱喻의 理論은 우리가 言語構造를 逸脫의인 것으로 지정할 때 意味하는 것을 公式으로 說明하는 rule-violation의 中心의인 概念을 包含하고 있다. 統語論의 혹은 意味論의인 것에 對한 기준을 주어진 構造 안에서 어떤 특정한 位置를 차지하는 形성소의 종류에 對하여 統語論의 그리고 意味論의인 制限이라는 點에서 普通 說明이 된다. 어떤 動詞類가 주어질 때 이것이 非逸脫文이 되기 위하여는 文法의in 主語와 目的語의 役割을 하게되는 名詞들은 選擇制限을 充足시켜야 한다.

Chomsky은 選擇規制을 지키지 못한 文章의 例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 ①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 ② John found sad.

즉 ①의 文章은 意味論의인 逸脫이며 ②의 文章은 統語論의인 逸脫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보기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選擇制限과 그 違反은 公式的으로 어휘적인 特징에서 說明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어휘 항목에 依하여 創造된 특정한 날말이나 慣用語는 아마 음운, 통어 및 의미특징의 세 가지가 한 組로서 認定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늑대를 죽지 않는 動物로 간주한다면 그 사람의 어휘 안에서 어휘항목은 어휘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휘 특징은 意味論의인 根源으로 理解되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휘 항목의 특징은 그들 자신이 特징에 依하여 說明되는 어휘항목이 될 것이다. 이런 點에서 어휘 특징은 어휘 항목이一般的으로 發見되는 담화환경의 範圍를 定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 특징은 어휘 항목이 보통 使用의 特징을 說明하며 이렇게 해서 어휘특징은 어휘 항목의 分析이나 定義보다는 오히려 글자의 語法의 說明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逸脫文이라 해석되는 文章으로서의 隱喻의 理解는 隱喻에 對한 充分한 說明을 줄 것이며 어휘특징과 文章의 語句構造라는 點에서 어떻게 이러한 逸脫文章이 選擇規則을 지키는 옳은 文章과 直接的인 類似點에 依하여 해석되는가를 검討할 必要가 있다.

“The volcano burped.”라는 隱喻의 文章은 構造의으로 볼 때는 “The man burped.”와 類似하다. 이 두 文章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가진 陳述을 하기 위한 意味論으로 使用된 句構造를 가지고 있다. 즉 文章의 名詞들은 動詞類에 依하여 說明된

어떤 行爲를 하고 있다고 主張되고 있다. 前者の 文章에서는 選擇制限違反은 生命이 없는 名詞에 斷定된 人間의 屬性이다. 非隱喻的인 文脈속에서 普通으로 使用되기 때문에 burped라는 낱말의 feature system은 人間行動이라는 특징이되어 “입에서 放射된다.” “안에서 나온다.” “가스體의 壓力에 依하여 생긴다.” 등의 다른 특징을 内包하고 있다. 火山이 사람이 아니라는 事實을 용인하고서 이 隱喻를 듣는 사람은 火山 추를 입술로, 분화구를 입으로, 분기공을 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勿論 “火山이 트립한다.”라는 文章의 中心의 重要性을 가진 것은 아니다. 隱喻를 理解하는 것이 이러한 연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點에서 學者들은 隱喻를 類似關係에 根據를 둔 것으로 보는 隱喻의 類似理論을 提起한다. 隱喻가 類似點을 創造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다. Black는 隱喻가 隱喻文의 主語에 對한 우리들의 見解를 꾸민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類似論은 重要的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隱喻의 句構造와 隱喻를 構成하는 낱말의 뜻에 依한 隱喻의 해석 속에서 인도되고 있다. 또한 이런 構成語句는 어휘 특징이라는 點에서 說明되고 있다.

이런 인도의 性格은 다음 例文에서 더욱 明白하게 된다. “The man is a wolf.”라는 文章 속의 隱喻는 그 계사관계가 하나의 class membership라는 句構造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特대에 依하여 表示되는 class의 一員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文章으로는 “The man is a gentleman.”라는 文章도 들 수 있다. 이런 文章에는 아무런 選擇制限規則의 離反은 없다. “The man is a gentleman.”라는 文章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The) man is (a) gentleman.

+ animate	+ animate
+ human	+ human
+ adult	+ adult
+ male	+ male
	+ well-bred
	+ courteous
	+ gracious
	+ considerate

위의 文章속에서 man과 gentleman에 共通의 특징이 되어 gentleman에 依하여 表示되는 class의 範圍을 限定하는 非共通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특징에 對하여서는 man은 中立의이다. 例를 들어서 gracious 혹은 courteous는 man-system에서는 構成要素도 아니고, 不許되는 것도 아니다. man에게 그러한 특징을 들리는 것은 選擇制限에 依하여 허락된다.⁸⁾

8) Robert J. Matthews, Concerning a Linguistic Theory of Metaphor, Foundation of Language, 1971. p. 421.

연합된 隱喻에서는 構成要素의 feature system은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도 있다.
 (The) man is (a) wolf.

+ definite	+ count
+ count	+ animate
+ animate	+ mammal
+ mammal	+ canine(−human)
+ human	+ quadrupedal
+ adult	+ tail
+ male	+ hairy
+ linguistic	+ nocturnal
+ bipedal	+ vicious
	+ predatory
	+ avoids man

위의 文章에서는 man의 feature system을 利用하는 選擇制限이 違反되고 있다는事實을 알 수 있다. the feature(+ human)을 가진 class의 member는 feature(+ canine, − humsn)을 가진 class의 member인 것으로 主張되고 있다.

隱喻에 依한 選擇制限과 그 違反는 (a) “The man is a gentleman.”의 文章과 (b) “The man is a wolf.”의 文章과 區別하는데 決定의 役割을 하고 있다. 즉 (+ human), (− human)의 選擇違反의 주위에 군집되는 연합위반이 있으며 그것도 (+ human), (− human)에 依하여 意味되는 것을 더욱 상세하게 說明하고 있다. 즉 例를 들면 (+ bipedal), (+ quadrupedal), (+ linguistic), (− linguistic), (− tail), (+ tail) 등이다.

i) man-system의 見解를 形成하는데 매우 重要性을 保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選擇制限違反에서 덜 直接的으로 關係된다. (+ human), (− human) 등의 選擇制限違反에 密接하게 關連되어 있는 특징 (+ hairy), (+ tail), (+ quadrupedal)는 (+ vicious), (+ predatory), + (+ nocturnal)등의違反에 포함되지 않는 wolf의 system feature보다는 隱喻를 理解하는데 덜 重要한 것처럼 보인다.

Macbeth murders sleep라는 文章에서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물건이 어떤 行動을 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 (Macbeth)이 어떤 行爲(murders)을 어떤 對象物(sleep)에게 한다. 이것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Machbeth murders sleep.

+ human	+ human agent	+ physical state
+ proper noun	+ human victim	+ rest or quiescence
	+ act of killing	+ applies to animate object
	+ malicious or premeditated	
	+ unlawful	

위의 文章속에서 動詞에 依하여 文法的인 主語에 強要되는 選擇制限은 滿足되어 있다. 그리고 行爲者는 人間이다. 그러나 文法的인 目的語에 強要되는 選擇制限은 滿足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만이 殺人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殺人の feature (+human victim)는 sleep(−human)이기 때문에 違反되고 있다. 이런 特定한 隱喻에서는 어떤 意味가 우리들의 解釋를 隱喻에 依하여 形成되는가 매우 疑心스럽다. 類似理論도 適用될 수는 없는 것이다.

“The rock is becoming brittle with age.”라는 文章을 살펴보면 아무런 選擇制限違反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隱喻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逸脫이란 文章이 隱喻의 뜻을 가지는데 必要하다는 主張에 疑心을 가지게 됨으로 이런 隱喻도 無視할 수는 없다. 이 文章이 비롯 隱喻의인 것은 아니지만 그밑에 깔려있는 隱喻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明確히 選擇制限의 概念이 隱喻의 分析에 中心的이라는 概念을 反對하고 있다. 選擇制限이라는 觀點에서 隱喻의인 것과 非隱喻의인 것을 說明하는 代身에 오히려 心理學의인 區別을 要求하는 學者들도 있기는 하다.

4. 結論

隱喻는 修辭學上의 한가지 技法으로 取扱되어 왔으나 現在로는 意味論의 問題로 研究對象이 되어 왔다. 隱喻는 比喻의 一種으로 直喻와 달리 A is B와 같이 表現해서 B가 表現하는 것을 A에게 부가하는 表現 樣式을 말한다. Johnson는 隱喻를 tenor와 vehicle로 說明하려고 시도했으나 많은 矛盾點이 있다.

最近에는 逸脫文과 意味없는 發話에 對한 繼續의 關心이 隱喻를 意味論의 對象이 되게 했다. 많은 言語學者는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을 發見하려고 시도했다. Bolinger는 意味論의 理論이 隱喻를 說明해야 한다고 主張했고 Bickerton에는 特殊한 屬性은 特別한 자질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도 어떤 sign의 表示에 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sign이 特殊한 屬性을 가지지 못하면 그 sign의 隱喻의in 使用이 되지 못한다고 說明한다.

Matthews는 隱喻와 非隱喻와의 performance distinction이 逸脫文과 非逸脫文을 구분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發話가 意味를 가질 의도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擇制限違反의 存在가 隱喻와 非隱喻를 区分하는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이라고 主張한다. 隱喻와 같은 言語運用現像是 言語學의in 영역 안에 있지만 이런 分析에 있어서는 言語能力과 言語運用 사이의 구별은 明確히 하는 것이 必要하다. Reddy는 選擇制限違反의 觀點에서가 아니고 心理學의in 面에서 隱喻와 非隱喻의 区分을 說明하고 있다. 隱喻의 修辭學上의 理論과 言語學의in 理論은 각各 價値를 지니고 있다.

Bibliography

- Sir Alen Gardiner, The Theory of Speech and Language, Clarendon Press, 1963.
- Hans P. Guth Concise English Handbook, Wordworth Publishing Co., Inc., Belmont, California, 1970.
- James E. Robinson, The Scope of Rhetoric, A Handbook for Composition and Literature, Scott, Foresman and Company, Glenview, Illinois, 1970.
- A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36, p. 89.
- Paul Newell Campbell, Rhetoric, Dickenson Publishing Co., Inc., Belmont, California, 1972.
- John P. Hughes, The Science of Language, Random House, 1963.
- Giles Wilkeson Gray and Claude Merton, The Bases of Speec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 Robert J. Matthews, Concerning a Linguistic Theory of Metaphor, 1971.

